

광주 의료지형 재편...KS병원, 필수의료 거점 부상

포괄2차 병원 지정... 지역완결 진료체계 본격 전환 응급·중증·감염병 대응... 중환자실·응급영상 확대 진료부터 회복까지 연계... 지역 의료전달체계 강화

광주지역 의료지형이 바뀌고 있다. 수도권 대형병원 출몰을 완화하고 지역 내에서 대부분의 진료를 해결하는 '필수의료 중심 구조'로 전환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KS병원(대표원장 김보영)이 그 중심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단순한 중환병원을 넘어 응급·중증·감염병 대응까지 아우르는 진료 체계를 갖추며 지역 내 치료 기반을 확대해가고 있다.

KS병원은 2011년 광주 수완지구에서 외래 진료를 시작한 이후 꾸준한 확장을 통해 지역 의료기관으로서 기반을 다져왔다. 개원 초기 건강검진기관 지정과 지역응급의료기관 역할을 맡으며 진료 영역을 넓혔고, 병동 증축과 건강검진센터

개소 등을 통해 외형과 기능을 함께 확장해왔다.

지난 2019년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된 것은 병원의 성격을 바꾸는 전환점이 됐다. 24시간 응급 대응 체계를 갖추면서 단순 진료 중심에서 응급 거점 기능이 강화됐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은 KS병원의 의료 대응 역량을 끌어올린 계기로 평가된다. 국민안심병원 운영과 선별진료소 구축, 코호트 격리병상 운영 등을 통해 감염병 대응 경험을 축적하며 공공의료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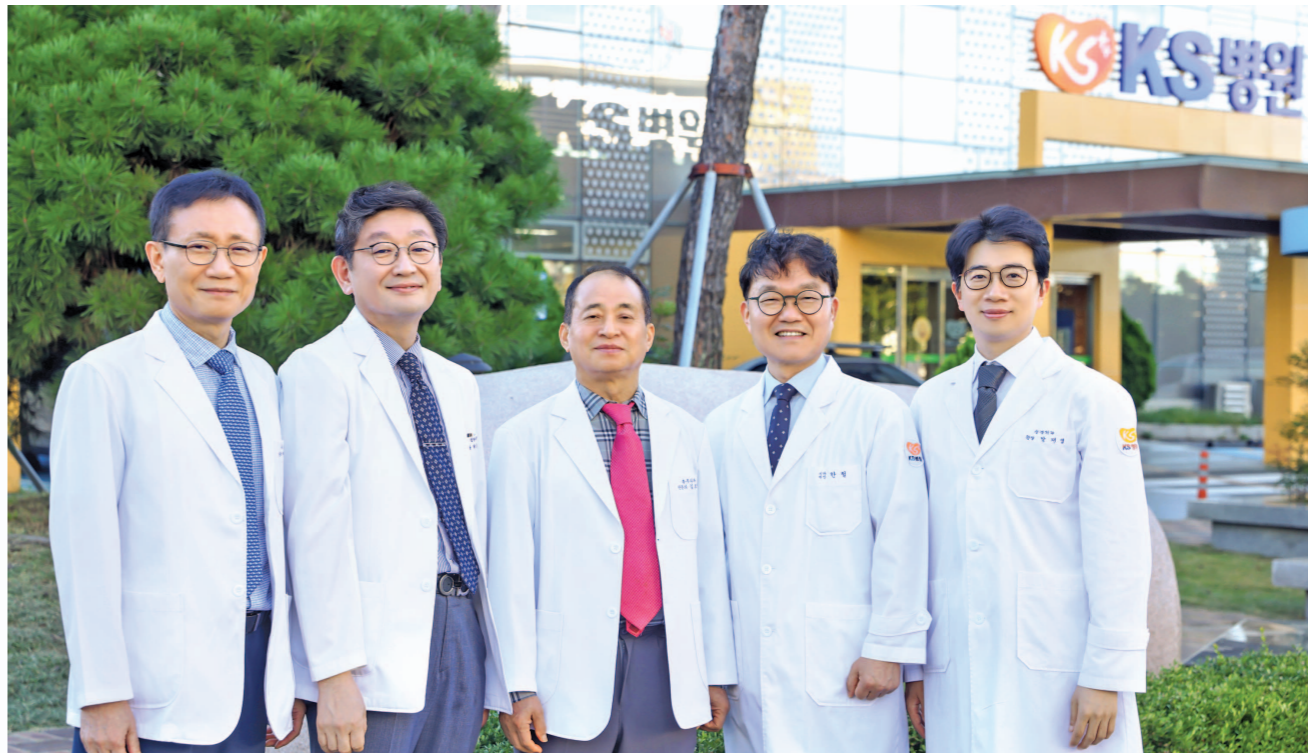
능도 확대했다.

이 같은 기반 위에서 KS병원은 지난해 7월 '포괄2차 종합병원'으로 선정되며 또한 한 번 전환점을 맞았다. 포괄2차 종합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 내에서 대부분의 의료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의료 전달 체계 개편의 핵심 축이다.

광주에서는 KS병원을 포함해 4개 병원만 선정된 만큼 지역 의료전달체계에 차지하는 역할도 커질 전망이다. 응급과 필수의료 기능을 중심으로 진료 역량을 강화하며 의료 공백을 줄이는 역할이 기대된다.

감염병 대응 인프라도 확대됐다. KS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긴급치료병상 지정병원으로 선정돼 총 13개 병상을 확보했으며, 이들 병상은 모두 음압격리 구조로 운영된다. 긴급치료병상은 신종 감염병이나 중증 환자 발생 시 전담 치료병상으로 신속히 전환되는 시설로, 평상시에는 일반 환자 진료에도 활용된다.

중증 치료 역량도 강화되고 있다. 심혈관·뇌혈관 중재시술이 가능한



김보영 KS병원 대표원장(왼쪽 세번째)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Biplane 장비 도입과 함께 중환자실 병상은 기존 12병상에서 23병상으로 확대됐다.

특히 내과와 외과 진료 영역을 구분해 환자 상태에 맞춘 치료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갖추고, 감염병 환자까지 수용할 수 있는 병상 구조를 마련하면서 응급·중증 환자 대응 역량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있다.

KS병원은 의료의 공공성 측면에서도 역할을 넓혀가고 있다. 지난 2024년 아동

학대 전담의료기관인 '새싹지킴이병원'으로 지정돼 피해 아동에 대한 의료 지원과 치료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한 예방 활동도 이어가고 있다. 이는 단순 진료를 넘어 지역사회 안전망의 한 축으로 가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처럼 KS병원은 개인 이후 단계적 성장을 거치며 진료 영역을 확장해왔고, 최근에는 필수의료 기능을 중심으로 의료 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응

급·중증·감염병 대응을 포함한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며 지역 내에서 진료부터 회복까지 이어지는 의료 연계 기능을 강화하는 흐름이다.

김보영 KS병원 대표원장은 "포괄2차 종합병원 지정과 긴급치료병상 구축은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지역 의료 체계를 바꾸는 신호"라며 "KS병원이 광주·전남 필수의료의 한 축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



현대차 '뉴 그랜저' 베일 벗었다 신차급 프리미엄 세단 '정조준'

'플레오스 커넥트' 최초 적용 '샤크 노즈'·메쉬 그릴 외장 전장 5050mm로 비례감 개선



현대자동차가 28일 신차급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그랜저 페이스리프트 모델 '더 뉴 그랜저'의 내·외장 디자인을 최초로 공개했다.

그랜저는 1986년 1세대 출시 이후 새로운 디자인과 신기술로 국내 세단 시장을 이끌어온 현대차의 대표 플래그십 모델이다.

이번 더 뉴 그랜저는 2022년 11월 출시된 7세대의 부분 변경 모델로, 디자인과 상품성을 대폭 개선해 신차급 변화를 꾀한 것이 특징이라고 현대차는 설명했다.

더 뉴 그랜저의 외장 디자인은 기존 모델의 역동성과 품격을 계승하는 동시에 각 요소들을 한층 정교하게 다듬어 더욱 균형 잡힌 비례와 완성도를 갖췄다.

전면부는 길어진 후드와 함께 한층 강조된 '샤크 노즈' 형상과 새로운 메쉬 패턴 콘셉트의 라디에이터 그릴을 적용해

보다 담담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완성했다.

더 얇고 길어진 베젤리스 타입의 심리스 호라이즌 램프는 더 뉴 그랜저 특유의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배가시키고, 프론트 펜더에 새롭게 적용된 사이드 리피터는 전면에서 후면으로 이어지는 디자인 라인의 연결감을 강조한다.

기존 모델 대비 15mm 늘어난 5050mm의 전장은 더욱 다이내믹하면서도 균형 잡힌 측면 프로파일을 구현해 전체 비례의 완성도를 끌어올린다.

후면부는 더 얇아진 리어 콰터 램프와 상단 가니쉬에 숨겨진 하든 텐시그널 램프를 적용해 하이테크한 인상과 심리스한 디자인 정체성을 강화했다.

또 현대차는 범퍼 하단에 워 타입의 가

니쉬를 적용하고, 차체 하부를 좌우로 넓게 감싸는 블랙 영역을 확장해 스포티한 분위기를 강조했다.

현대차는 더 뉴 그랜저의 신규 외장 색상으로 장인의 정성스러운 손길이 깃든 전통 '울질'에서 영감을 받은 '아트스틸 버건디'를 추가했다.

현대차는 더 뉴 그랜저의 실내 공간을 현대차의 '더 뉴 그랜저 라운지' 콘셉트를 계승하면서 넓은 공간감과 혁신적인 사용 경험을 가미한 한 차원 진보한 프리미엄 공간으로 새롭게 구성했다.

또 중앙 디스플레이 하단에는 주요 기능 버튼 버튼을 조화롭게 배치해, 주행 중 시선 분산을 최소화하면서도 안정적인 직관적인 조작이 가능하도록 배려했다.

플레오스 커넥트 적용과 함께 더 뉴 그

랜저에는 '전동식 에어벤트'가 최초로 탑재됐다.

전동식 에어벤트는 풍량·풍향 등 공조 기능을 디스플레이에서 통합 제어하는 혁신적인 사용 경험을 제공하는 동시에 공기 토출구를 감춰 더욱 매끄러워진 대시 보드의 여백은 더 뉴 그랜저 실내 공간의 고급감을 더욱 부각시킨다.

한편 현대차는 더 뉴 그랜저 출시를 기다리는 고객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얼리 액세스' 사전 알림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번 이벤트는 5월 13일까지 운영되며, 참여 고객에게는 더 뉴 그랜저의 상세 상품 정보와 공식 런칭 일정, 전시 및 시승차 관련 정보 등이 우선적으로 제공된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현대차그룹,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실증 상반기 중 법인택시 대상...운행 부담 완화

현대자동차그룹이 전기차 배터리를 차체와 분리해 구독하는 서비스 실증으로 전기차 운행 부담 완화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현대자동차와 현대캐피탈이 함께 올해 상반기 중 보증기간이 만료된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실증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11월 국토교통부의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심의를 통해 승인된 '전기차 차체-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록' 규제 특례를 기반으로 추진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배터리를 전기차와 분리해 별도로 등록·관리하는 체계를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배터리 성능 저하에 따른 감가 부담과 교체 비용 부담이 전기차 구매 수요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현대차는 수도권 법인택시 아이오닉

5대를 대상으로 배터리 구독형 서비스를 운영해 배터리 소유권 분리 구조가 실제 운행 환경에서 전기차 운행 비용과 차량 활용 기간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실증에 참여하는 법인택시는 구독 기간 동안 현대캐피탈에 월 구독료를 납부하며, 배터리 교체가 필요할 경우 사용 중인 배터리를 현대캐피탈에 반납하고 현대캐피탈 소유의 배터리를 제공받는다. 해당 서비스는 별도의 배터리 구매 없이 구독 방식으로 운영된다.

법인택시는 특성상 짧은 기간에 높은 주행거리를 기록해 배터리 성능 저하와 교체 수요가 빠르게 발생하는 만큼, 현대차그룹은 이번 실증을 통해 전기차 운행 과정에서의 비용 부담 완화 가능성과 차량 운행 기간 연장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